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 이해

–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

## The ‘Good Works’ in Heidelberg Catechism

– Focused on the Socially Weak –

김성애 (Sung-Ae Kim)\*

### Abstract

The study aims at discussing on the significances of the Good Works in Heidelberg Catechism, and then suggesting the significances for the Korean Christianity. More detailed objectives and related contents are as followed.

First, the study looks into the significants of ‘Good Works’ in the Heidelberg Catechism. From here the historic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in terms of the Heidelberg Catechism are described, and the concepts of the Good Works is mentioned as well. And relation to the Good Works, the meaning of gratitude, belief, holy spirit in the Heidelberg Catechism are discussed. Lastly, the Good Works are discussed based on the socially poor and weak in the Heidelberg Catechism. Ursinus has mentioned that the Good Works comes out the true beliefs, follows God's Laws, and they are all about the glory of God. Therefore, the Good Works for the socially poor and weak should be what Christian is to obey God's command of serving the poor and weak.

Lastly, the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for the Korean Christianity regarding the Good Works in the Heidelberg Catechism. Korean society in the super individualism neglects the socially weak, and churches in the society passes over those individualism in silence. In the society and the church, the awareness of community would be buried under the capitalistic economy. In such a phase, necessity of Christianity Role should be strongly come to the fire, which could recover on the awareness of community in the society and the church. So it should be necessary to the ethical works for the poor and weak, as a code of conduct for Korean Christianity. Therefore the Korean Christianity should look for new significants in Jesus' Commands, that you shall love your God and

---

\*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sakim@daegu.ac.kr

2017년 06월 25일 접수, 07월 17일 최종수정, 07월 19일 게재확정

your neighbor as yourself.

**Key Words** : Heidelberg Catechism, good works, the socially poor and weak

이 논문은 김성애 (201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난 ‘선한행위’ - 레비나스 타자윤리와 관련하여 -)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중에서 일부를 이 논문의 형식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임.

## 1. 연구의 의의

연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기독교인이 가지는 믿음의 본질은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행위’ 속에서라는 말이다. 그 행위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선행이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주제를 가진 중요한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이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선행일진데, 이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특히 사회 구성원은 가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의 발달과 그로 인한 다양한 소통 방법 특히 SNS 등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과 물리적인 접촉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그래서인지 이 사회는 초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적지 않은 개인들이 자기 이외의 일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 폭력, 비도덕적인 일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둔감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의 발생 원인에 대한 통감함이 무너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이러한 개인 중심의 사회에서 질어져가는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교회가 관념적 차원에서의 믿음을 타파하지 못하는, 즉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 못하는 부분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교회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그것에 근

거한 윤리적 임무에 대해 감각을 일깨워야 하는데도 말이다.

믿음과 행위가 이분법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해야 하는데, 그 행위가 바로 선행이라 하겠다. 이 선행이 개인적 이기심의 껍질을 깨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공동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적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 할 핵심적인 해법의 내용이 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선행은 믿음에 전제한다고 하면서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이 말은, 믿음을 행위로 온전하게 표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신학적 의미를 논함에 있어, 성령에 대한 부분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이상은, 2013: 282).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선행을 강조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성령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것인데, 이 믿음은 항상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 믿음 다와 진다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첫 번째 문항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포괄적이고 역동적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것은 구원과 칭의의 사역에서 뿐 아니라 성례전과 선한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이상은, 2013: 283).”<sup>1)</sup>

이에, 연구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을 구체화함으로써<sup>2)</sup>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을 입은 신앙인이 어떻게 선행을 통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믿음은 단지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거나 관념적인 그물망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행함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함으로 유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그것도 선행을 통해서 확인되기에, 이 연구가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선행을 강조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회복하는 시사점을 얻도록 하는 데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관련된 모든 선행 연구들은 선행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 부분에 대해 이경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혁과 교회의 교리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연구가 적을 뿐 아니라, 저자 우르시누스가 쓴 해설서에 대한 국내 연구는 더 적은 실정이다. 그러하기에 우르시누스의 해설서를 자료로 삼아 믿음과 선한행위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한국 개혁과 교회 신자들의 삶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할 수 있다”(이경직, 2013: 53).

## II.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

### 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적 배경, 성격 및 구조

#### (1) 역사적 배경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저자에 대한 분분한 논란 가운데서도 유력한 추측은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라는 설과 공동저자 설이다(주도홍, 2013: 184). 전자는 존 네빈(John W. Nevin)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소개의 글에 밝힌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 내용에 우르시누스의 정신과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는 말에서도 확인이 된다(원광연 역, 2006: 2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4판에 이르는 보완작업을 거쳐 완성되었고, 1618~19년 도르트총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주요 기독교 국가에서 수용되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개혁신교회의 주요 신앙고백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였다(주도홍, 2013: 19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배경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그것은 팔츠 지역을 통치하는 자들이 관여되어 있음과(권호덕, 2007: 166) 통치하는 자가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신앙적 노선에 따라 달라지는 종교적 내용과 강조로 인해 야기되는 신앙에서의 무질서와 오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것(권호덕, 2007: 166)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당시의 통치 철학과 운영을 자신의 신앙적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요리문답은 개혁신교회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개혁신교회 세계 3대 신앙고백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주도홍, 2013: 184).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교육서로서 역할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의견 중 하나이다.

#### (2) 성격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프리드리히 3세의 신앙적 열망과 루터 및 칼빈의 종교개혁적 성격을 함께 품고 있으면서 신앙적 지도자나 평신도 모두에게 적합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주도홍, 2013: 208). 권호덕은 “Ursinus는 마치 여러 방향의 종교개혁자들

의 신학사상을 용광로에 녹여 만든 종합체와 같았다. 또 그의 동료인 Olevianus는 칼빈의 제자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루터와 멜란히톤 그리고 칼빈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것이다(권호덕, 2007: 183).”고 언급한다. 그래서인지 네빈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이 삶과 밀접한 관계로, 소위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고 역설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요리문답은 사사로운 작품이지만, 이것은 결코 단순히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개인적인 사색의 산물이 아니었다. 이것을 만들어낸 우르시누스는 그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신앙적 삶의 기관이었다(원광연 역, 2006: 26).”고 밝히고 있다.

### (3) 구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시대를 향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믿음과 행위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렇게 되는 이유로,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된 인간이 칭의를 통한 구원으로 위로를 얻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한다(이경직, 2013: 53).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비참함에 관하여(제1부: 3문-11문),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제2부: 12문-85문), 감사(제3부: 86문-128문)가 그것이다(이형기 편역/해설, 2003: 112).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경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연관성 있는 체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신학적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는데,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필립 멜란히톤(Phillip Melancthon), 존 칼빈(John Calvin) 등의 신학이 바로 이 요리문답의 신앙적 근거이며, 이 요리문답은 인간의 죄에 대한 비참함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주는 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고 칭의와 감사가 그 뒤에 기록되어 있다(주도홍, 2013: 199).

## 2.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

### (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의 개념적 정의

선행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답은 이렇다:

제91문: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 “오직 참된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으며(롬 14:23),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삼상 15:22; 엡 2:10)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고전 10:31) 일들이며, 우리의 견해나 인간의 규정 에 따른 일들이 아닙니다(신 12:32; 겔 20:18,19; 사 29:13; 마 15:9). (황재범 편역, 2013: 69)

우르시누스는 91문답을 해설하면서 선행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다(원광연 역, 2006: 756).”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르시누스는 선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되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원광연 역, 2006: 756)고 강조하면서,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하심에 따른 참된 믿음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원광연 역, 2006: 756-758).

이상의 설명에서 보면, 선행은 결코 ‘나’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요, 칭의와 믿음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또한 이것은 믿음과 감사가 있도록 한 성령의 역할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선행에는 믿음, 감사, 성령이 언제나 동반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인리히 헤페(Heinrich Hepp)는 우르시누스가 말한 선행이 일어나는 원인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1) 필수적으로 칭의를 수반하는 중생, (2) 구속에 대한 감사, (3) 하나님의 전파, (4) 우리 신앙과 선택의 확증, 그리고 (5)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나타내는 선한 모범(이정석 역, 2011: 822)”이 그것이다.

## (2) 선행의 목적

헤페는 선행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영생에 도달하기 위해서(이정석 역, 2011: 821-822)라고 한다. 여기서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해설에서 직접 언급한 선행의 이유를 86문답을 통해서 찾아보기로 한다:

제86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의하여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왜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답: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를 대가로 치루시고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또한 그

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시므로, 우리는 삶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롬 6:13; 12:1f; 뵤전 2:5, 9, 10; 고전 6:20)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게 되기(마 5:16; 뵤전 2:12)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보고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확신을 하게 되고(뵤전 1:6, 7; 마 7:17; 갈 5:6, 22f.) 또한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될 것(뵤전 3:1f; 롬 14:19)이기 때문입니다(황재범 편역, 2013: 67).

이상에서 본 대로, 우르시누스는 선행의 이유와 선행의 내용을 86문과 91문의 해설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행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중생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2. 우리가 구속의 은덕에 대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함이다.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4. 그것들이 믿음의 열매들이기 때문이다. 5.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선행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이다. 1. 하나님과 관계된 선행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2. 우리 자신을 위해 선을 행하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선택과 구원에 대해 확신하고, 선행을 통하여 믿음이 발휘, 양육, 강건,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의 소명과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세속적이고 영적인 상급을 받기 위하여 이다. 3.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는 목적은 이웃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의에 장애와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다(원광연 역, 2006: 739-769).

이러한 선행이 가능하려면 그 전제가 있는데, 즉, 오직 중생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을 위한 회심과 믿음이 선행되어야 함이 그것이다(원광연 역, 2006: 760-762). 베른하르트 로제(Bernhard Lohse)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혐오를 벗기 위해 하나님께 회개함을 시작으로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진리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Lohse ed., 1988: 287을 주도홍, 2013: 200에서 재인용).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은 단순히 특정한 문답 속(86문, 91문)에 간혀 있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견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성령에 힘입어 믿음 가운데서 중생한 우

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선행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와 대면하고 있다.

### 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감사와 선행

우르시누스는 선행을 감사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는데, 즉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한 것이요,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행위이다(원광연 역, 2006: 766). 이 말은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에 대한 선행을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감사는 성령과도 연결되는데, 그것은 선행이 성령이 전제된 것이므로 감사 또한 그러하다고 하겠다(이상은, 2013: 287). 이경직은 선행이 감사로 나타날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보다 큰 확신을 얻으며 그것이 위로가 된다고 하면서 사랑을 언급하는데(이경직, 2013: 67),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한 결과 나오는 반응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원광연 역, 2006: 80을 이경직, 2013: 67에서 재인용)” 이렇게 우르시누스는 감사의 필요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자신이 위로를 얻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모든 선행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서 우리에게 공로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감사의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원광연 역, 2006: 737).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즉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믿음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우리의 간절한 심적 상태요, 그래야만 그러한 우리의 심적 상태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선행이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상은에 의하면, 선행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는데(이상은, 2013: 287), 여기서 그는 기도와 윤리의 중요성이 있음을 미카엘 바인트커(Michael Beintker)의 인용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간은 선한 사역에로의 능력을 향한 해방으로 전개되며, 하나님의 계명의 지평 안에서 기쁨을 가진 삶을 향해 나타난다(86-113문). 이것은 또한 감사의 삶에서 이어지는 “기도”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116-129문) 기도는 가장 “숭고한 부분”(vornehmste Stueck)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감사의 가장 중요한 형태”(116문)로 나타난다. (...)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우



리의 이성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다(86문). (이상은, 2013: 288-289)

위에 열거된 대로, 바인트커는 기도를 감사의 구체적인 열매인 선행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그러기에 우리의 윤리는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중심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윤리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감사를 고양시키는 우리의 선행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르시누스는 감사에는 진실과 정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기도는 진실에, 선행은 정의에 속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참 열매인 선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회심의 중요함을 또 한 번 지적하면서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과정들, 특히 행위는 선행이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강조한다(원광연 역, 2006: 737-738). 그러니까 회심, 믿음, 감사, 기도 중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안에서 선행의 본질을 일으키고 유지 시키는 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겠다.

#### 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믿음과 선행

##### (1)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선행

앞에서도 언급된 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선행은 제91문에 있지만 이것은 86문에서부터 이어져있으며 제3부의 끝인 128문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우르시누스가 선행을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선행이 믿음의 증거이고 결과이며 믿음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선행이 회심과 무관하지 않으며 회심을 가능케 하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이경직, 2013: 54)”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선행과 관련하여, 믿음의 정의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우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21, 22 문답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21문: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 믿음은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 모두가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바의 하나의 확실한 앎입니다(약 1:18). 다른 한편으로 참 믿음은 성령께서(고후 4:13; 엡 2:8, 9; 마 16:17; 빌 1:19)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서 실행하는 것(롬 1:16; 10:17)인 바의 진심어린 신뢰(롬 4:16-21; 5:1)입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대가없이 주어지되(히 11:7-10; 롬 1:16), 순수한 은혜에 의해, 즉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엡 2:7-9; 롬 3:27f; 갈 2:16).

제22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모든 것인데(요 20:31; 마 28:20), 이것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의 보편적이며, 의심할 바 없는 사도신경입니다. (황재범 편역, 2013: 37-38)

이상의 요리문답의 내용을 우르시누스의 해설을 통해 살펴보면, 그는 믿음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한다(원광연 역, 2006: 203). 그 중에서 네 번째인 ‘의롭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선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인데,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원광연 역, 2006: 209). 이경직은 우르시누스의 말을 빌려 네 종류의 믿음 중 앞 의 세 종류는 성령의 일반적 역사를 통해 생기며, 네 번째 믿음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만 생긴다고 하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우리 인간이 거듭나게 될 때 두 돌판 모두가 인간 마음속에서 회복된다고 할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특별 계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이경직, 2013: 61).”고 언급한다. 그래서 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이 참된 믿음의 본질적 면을 언급한다고 하면서, 참된 믿음은 인식과 그 믿음의 필수 조건인 확신이라는 이 두 가지에 의해 가능하다고 한다(이경직, 2013: 57).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에는 일종의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우르시누스는 언급한다. 즉, 그것은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롭다 칭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며, 회심과 중생과 온전한 순종이 생기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생기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수용하는 것 등이다(원광연 역, 2006: 210)

여기서 볼 때,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뚫고 나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행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행이다. 이경직은 우르시누스가 주장하는 이 점에서 칼빈의 입장을 충실히

따른다고 하면서,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이해라는 지적 요소도 지니지만(Calvin, *Institutes*, III. ii. 2.) 감정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도 지녀야 한다. 칼빈에 따르면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동반한다(Calvin, *Institutes*, III. xi. 20)(이경직, 2013: 64).”라고 언급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에서도 선행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를 대가로 치루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는 믿음과 ‘우리를 또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 것이다. 우르시누스 역시 그의 해설에서 선행의 이유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요구하시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 기 위함(원광연 역, 2006: 765)”이라고 언급하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12),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 4:3),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13) 등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원광연 역, 2006: 765).

## (2) 믿음과 우리 자신에 대한 선행

이상의 내용들은 믿음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선행의 부분이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해서도 선행하도록 한다. 역으로 말하면,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거 되고 우리의 ‘믿음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60배 100배 자라게 된다. 우르시누스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선행과 새로운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외식자들이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처럼 선행과 순종과 회개를 생산하기 때문이다(원광연 역, 2006: 766).”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선행을 하게하며, 선행이 믿음을 더욱 양성시킨다(원광연 역, 2006: 766).”고 역설한다.

## (3) 믿음과 이웃에 대한 선행

믿음은 또한 이웃에 대해서도 선행을 하게 한다. 우르시누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선행을 하게 하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부분, 그리스도의 대의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부분이다(원광연 역, 2006: 768). 여기서 선행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선행은 구원에 필수적이지만, 선행 자체가 구원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볼 때(이경직, 2013: 64 참조), 이웃에 대한 선행의 본질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웃을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겠다. 다시 한 번 21 문에 나타난 믿음을 보면,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둘째,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서 실행하는 것인 바의 신뢰(황재범 편역, 2013: 37 참조)로 요약된다고 하겠다.

### 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령과 선행

이 절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는 선행이 성령과 어떤 관계 속에 있으며 성령이 선행을 위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53문답에 나타나 있다:

제53문: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며(창 1:2; 사 48:16; 고전 3:16; 행5:3f.), 둘째 그는 내게도 계셔서(마 28:19; 고후 1:21f.) 참된 믿음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모든 혜택에 참여하게 해주시며(갈 3:14; 벰전 1:2; 고전 6:17), 나를 위로해주시고(행 9:31)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입니다(요 14:16; 벰전 4:14). (황재범 편역, 2013: 50)

이 문답에서 우르시누스는 성령에 대해 위격, 직분, 역할 혹은 활동의 세 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원광연 역, 2006: 448), 이러한 성령은 자신의 직분에 따른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시나, 특히 경건한 자들에게 성화, 믿음, 중생, 기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소망, 인내 등을 은사로 주신다(원광연 역, 2006: 62). 이상문에 의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령론은 그리스도론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서(이상은, 2013: 299),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령의 특성은 현대에 와서 바르트를 통해서 주목되었다. 그는 우선 요리문답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성의 신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춰진 하나님 혹은 절대적 하나님(Deus absconditus, Deus absolutus)

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고 설명한다.(이상은, 2013: 299)”는 바르트의 의견을 인용하여 부연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31문, 32문)(황재범 편역, 2013: 42-43) 성도가 기름부음 받는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신다고 하며, 성도의 윤리적 사명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이상은, 2013: 304).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그러면 우르시누스가 언급한 성령이 선행에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우르시누스는 선행을 성령의 전제 속에서 언급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선행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선포를 통하여 마음이 진정 중생한 중생자에게만 가능하며, 그것도 최초의 회심과 중생에서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동일한 성령의 항구적이고도 끊임없는 영향력과 지도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날마다 그 동일한 선물들을 그들 속에서 더욱 증가시키고 확증시키는 것이다(원광연 역, 2006: 760).

여기서는 우리가 하는 선행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 즉 그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첫 회심에서 비롯된 중생 뿐 아니라 성화 과정 까지도 관여하신다(이경직, 2013: 62). 그러니까 선행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켜야 할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도록 하는 성령에 의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 가능한 일이어서, 단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킨 결과가 선행이다(이경직, 2013: 66).”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전 생애동안 선행을 하여 성화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고 하겠다(주도홍, 2013: 205). 우르시누스는 91 문답을 해설하면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부정하며 가증스럽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더러운 배설물일 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회심 이전에는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믿음이 선행의 원인이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원광연 역, 2006: 761).”라고 강조하여,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그 어떤 행위도 선행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이상은은 성령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의 주체이신 성령’이고 다른 하나는 ‘성화의 주체’로서의 성령을 말하

고 있다(이상은, 2013: 284-287). 여기서 우르시누스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선행은 믿음과 회심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이라는 것이다(원광연 역, 2006: 761).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주장에서 선행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한 회심과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고, 선행은 바로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단언이 확실한 성경적인 논리를 가진다고 하겠다(원광연 역, 2006: 763).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7문과 8문과도 연결된다고 하겠는데, 우르시누스는 그것을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않은 자의 선행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과 그 차이에 대한 이유를 들어 밝히고 있다(원광연 역, 2006: 110). 우르시누스가 밝히는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선행은 중생한 자들의 믿음 가운데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고 할 경우, 중생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은 중생자들의 선행이 성화된 삶으로 엮어내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이자 핵심이 된다고 할 것이다. 즉,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가 선행이 되도록 관여하신다는 의미이다.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은 인간이 성화하게 하는 주체가 된다(이상은, 2013: 304). 성화는 애초에 구원이 없이는 그 언급이 불가능한데,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은 선행을 통하여 완성된다(이경직, 2013: 78).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선행은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우르시누스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로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우리의 행위는 불완전하여 많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2.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인 고상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4. (왜냐하면) 가령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그것은 성령으로 인한 행위 이므로 하나님의 것이다. 5.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 6.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 7. 그래서 우리는 선행 이전에 먼저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 8. 이것은 우리 자신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받는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 9.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의를 얻는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다. 10. 선행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11.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시다(원광연 역, 2006: 769-772).

이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안에서 필히 선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두고 이경직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을 해설

한 우르시누스의 선행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영광,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일로 규정하면서 율법은 선행의 규범적 측면에서, 영광은 상황적 측면에서, 그리고 선행을 참된 믿음에 두는 것은 실존적 측면에서 규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이경직, 2013: 72). 그러기에 중생함을 입은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하지 선행을 닮은 행위를 하면 안 될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의 ‘행위 자체’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그 뿌리를, 선행의 본질적인 터를, 선행의 주체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Ⅲ.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

앞에서 충분히 언급되었듯이,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86문)를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삶 전체로 감사함을 표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 하겠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요구에 응하는 측면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의 측면이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이유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인데, 즉 그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함 이요,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삶이다(원광연 역, 2006: 765; 최태영, 2012: 14). 이런 이유에서 선행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인 자신, 이웃으로 들 수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과 구원 얻을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의무적인 것이다. 즉, 선행을 해야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그러므로 86항은 선행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것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최태영, 2012: 14).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을 행하는 이유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즉, 선행의 표면상 드러나는 행위의 현상적 내용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왜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존 웨슬리(John Wesley)가 주장하는 존재와 행위, 영성과 윤리를 분리할 수 없는 것(홍순원, 2013: 568)과도 맥을 같이한다 하겠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은 매우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은 단순히 행위 차원의 강조도 아니고 믿음과 행위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의 시비를 가리는 차원에 있지도 않다. 즉, 선행은 믿음의 구체적인 고백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선행은 도무지 가능하지 않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중생한 자의 모든 행위는 선행이 목적이어야 하고 삶이어야 하는 바로 그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영적 목표이자 동시에 현실적인 삶의 이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윤리적 선행을 말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감사, 그리고 소통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선행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행할 방법도 아울러 언급한다. 여기서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고 하여 그 행위가 완전히 선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듭난 기독교인에게 선행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인간은 그러한 행위를 온전히 하기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맺는 열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인간의 행위들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도 하고 불경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들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의 행위의 모든 결점과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하게 복구되는 것이다(원광연 역, 2006: 756-757).

이상에서의 선행에 대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을 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차원에서 본 선행의 정의, 믿음의 중요성, 성령의 역할, 감사의 의미가 앞서 기술된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자의 입장이 논의된다.

## 1. 사회적 약자 중심 선행의 정의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 역시 선행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지 않다. 즉, 선행이 단지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돌아보고 함께하고 돌보는 것 자체만으로는 선행이 될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행에 대해 논하기 전에, 연구자가 정의한 선



행을 앞서 언급된 선행의 내용에 근거하여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은 하나님, 우리 자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 감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우리 자신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부분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세 차원은 그 각각의 독립적인 차원을 다루기보다는 하나님, 나, 이웃을 유기적인 관계로 엮어서 행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하나님-나, 하나님-이웃, 이웃-나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나-이웃-하나님’이라는 유기적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선행을 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믿음, 성령, 감사 등을 선행과 엮어서 그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중생한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 즉 사회적 약자를 섬기라는 것에 순종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라는 성경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적,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는 것 등이다.

## 2.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을 위한 믿음의 중요성

앞서 언급된 것처럼, 우르시누스가 믿음의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고 중생하게 하는 본질이라고 하겠다. 믿음이 선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네 번째 믿음이 확신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낳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롭다고 믿고 확신하는 믿음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믿음에 기인한 ‘따름’은 바로 선행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서 나오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롭다고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그 안에서의 행위는 선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 선행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잣대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을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이 있는 가’, ‘나에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가’ 하는 것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선행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매몰될 위험성에 빠지지 않을 거울이 된다.

### 3.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을 위한 성령의 역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담고 있는 성령론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이웃을 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이상은, 2013: 289).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문답에서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음을 기록하고 있고(황재범 편역, 2013: 32 참조), 우르시누스는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그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행위를 행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값없는 은혜로 사람들 속에 있게 하시기로 정하시는 것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서도 선한 생각들과 행위들이 나올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은혜로운 작정에 선하게 여겨지는 쪽 이외에는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 뜻을 다른 쪽으로 지향할 수가 없다(원광연 역, 2006: 123).

이렇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을 텐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은 그 실천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 하신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이기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섬기시는 삶을 사신 예수의 생활을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어려운 일일 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실현할 수 있게 만든다. 성령의 강력한 개입은 우리의 삶과 생활 전체에 하나님의 명령, 약자를 돌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요청을 순종으로 채울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전 생애동안 이룰 수 있도록, 즉 우리의 삶에 성화의 과정으로 자리하게 하고 성화를 이룰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존재하도록 한다. 중생한 사람에게 성령의 함께하심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 4.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에 대한 감사의 의미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다. 그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그의 자녀됨을 알게 하였으니, 감사가 그에 따라서 나온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문답(황재범 편역, 2013: 31 참조)에 나오는 것으로, 그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의 첫 번째 계명에 근거하여 감사가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에 주는 의미를 논의하도록 한다.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를 우리의 최고선으로 여기고 높이 우러르며, 최고로 그를 사랑하며, 오직 그의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그에게만 신뢰를 두며, 다른 모든 것보다 그의 영광을 사모하여, 그를 불쾌하게 하는 생각이나 성향이나 욕망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도록 하는 것이요, 아니, 우리가 극진히 아끼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거나 극심한 재난을 당할지언정 그분과의 교제로부터 분리되거나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를 거스르는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 것이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원광연 역, 2006: 72).

우리의 감사함은 위에서 언급된 바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선으로 여기므로 그가 우리를 향한 정의 실천의 당부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선행으로 그의 선이 최고가 됨을 우리의 행위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적 약자와 나누며 그들을 보살피고 함께 하는 선행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와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사가 진실과 정의로 이루어져 있다(원광연 역, 2006: 737-738)는 우르시누스의 말을 되새겨 보면, 분명히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으로 약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소외되고 버려져야 함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중심한 선행은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정녕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중생함을 입은 데서 오는 감사함의 표현이고, 동시에 그들의 현존을 존중하는, 그래서 그들이 삶의 풍요 가운데 초청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정의적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 Ⅳ.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이 한국 기독교의 역할에 주는 시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되, 그 길은 인간에게 주어진 온전한 칭의 임을 확인하게 한다. 선행의 동기는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되는데, 그 동기는 중생함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죄 벗어짐에 대한 감사함에서, 그리고 중생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성화의 길에서 주어진다 하겠다. 이렇게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보답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일하심과 뜻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인간의 확신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에서 실현되는 열매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근거하여 볼 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꽃을 피우는” 곳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한유진, 2013: 64).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는 바로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본거지로 역할해야 한다.

디아코니아는 좁은 의미에서는 주로 물질과 경제적 측면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해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모든 섬김의 사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통전적으로 이해된다.(...) 개혁교회 전통에서 디아코니아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이나 복음전파의 수단 정도이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구원과 해방과 화해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직결되어 있다(최윤배, 2012: 923).

위의 인용에서 본 바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디아코니아)이 개혁교회의 전통이고 큰 비중으로 자리해 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행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당연한 교회적 소명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중생함을 입은 우리의 직접적인 섬김이요,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감사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행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을 실현할 본질적인 터요, 계획이요, 에너지의 집합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맨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초개인주의적 현상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 들어 있는 교회는 그

구성원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영달을 추구하는 믿음을 양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중심’의 사고가 교회 안에 살아 있는 한, 한국 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믿음의 행함’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교회가 아무리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말이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관념 자체 만으로서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그 본질은 행위, 그것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행으로 나타날 때에만 존재 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그 선행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속에서 말하는 선행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아야 함의 당위성을 가지게 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차원이어야 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되새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빠진 행위는 그저 인간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중생한 자의 특권인 영생의 열매를 가지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 18:10)”라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같은 책 25장 40절에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40)”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몸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일상적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그 일상적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섬김’을 깊이 묵상하고 그의 뒤를 따른다는 각오이므로,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넷째,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과 윤리적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는 선행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즉,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평화와 안락으로 회복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초개인주의 시대 속에 있는 지금의 사회는 점차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 안에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적인 사명보다는 구성원 개개인의 이기심에 따

른 계약 관계의 형성을 묵과하고 있다. 이렇게 점차 경제적 자본주의 논리 속에 매몰되어 공동체 의식과 이웃이 상실된 우리의 사회와 교회에서 “너”와 “우리”의 중요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독교의 역할은 절실하고도 시급하다. 우리 사회 내에서 고통과 험벗음은 공동체 속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돌보고 살피는 공동체적 성격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윤리적 행위가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행동 강령으로 자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새 계명이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 연구자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행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선행의 의미 속에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도록 하는 면과 인간관계에 필요한 윤리적 태도의 내용적 면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요일 3:17)”라는 말씀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행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라는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진실로 실천하기를 강조한다. 이제는 교회가 경제논리와 이기심과 어울려 지내던 장면들에서 돌아서서 공동체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인 사랑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 사랑이 곧 선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표일 것이다.

이에, 한국 교회는 믿음이 구원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선행이 일상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의 기독교적 신앙고백을 보다 확고한 교리적 이해 속에서 재인식해야 하고, 믿음이 이념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행으로 이어질 행동강령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예배와 설교는 개인중심이 아닌 공동체의 확인과 구성원간의 관계성과 소통이 살아나도록 하는 개념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교회는 예배 안에서 성례의 본래적 의미가 회복되도록 장려하고 그 속에서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할 방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권호덕 (2007).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신학적 특징에 대한 한 연구. **장로교회와 신학**, 4(0), 163-203.
- [Kwon, H. D. (2007). A Study on the Th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Heidelberg Catechism. *Korean Presbyterian Theological Society*, 4(0), 163-203.]
- 김성애 (201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난 ‘선한행위 - 레비나스 타자윤리와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Kim, S. A. (2014). *The ‘Good Conducts’ in Heidelberg Catechism - In Relation to Lévinas’ Ethic of ‘the others’ -*. Master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이경직 (2013). 이신칭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한국개혁신학**, 37(0), 48-83.
- [Lee, K. J. (2013). Concepts of faith and good act in 원광연 역’ Commentary of Heidelberg Catechism. *Korea reformed theology*, 37(0), 48-83.]
- 이상은 (201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령론: 그 윤리적 함의. **한국개혁신학**, 40(0), 281-310.
- [Lee, S. E. (2013). The Pneumatology of the Heidelberg Catechism: Its Ethical Implication. *Korea reformed theology*, 40(0), 281-310.]
- 이형기 편역/해설 (2003). **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Lee, H. G. (Compilation/Translation/Commentary) (2003). *Confession on Faith in the World Reformed Church*. Seoul: Korean Presbyterian publisher.]
- 주도홍 (201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와 정신: 개혁교회 그 분명한 정신을 추구하며. **한국개혁신학**, 40(0), 183-214.
- [Jou, D. H. (2013). History and Spirit of the Heidelberg Catechism. *Korea reformed theology*, 40(0), 183-214.
- 최윤배 (2012). **갈뱅신학 입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Choi, Y. B. (2012).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John Calvin*. Seoul: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최태영 (2012). 개신교 신앙고백서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이해. **신학과 목회**, 37(0), 5-27.
- [Choi, T. Y. (2012). An Understanding of Holy Life According to Protestant Confessions. *Theology and Ministry*, 37(0), 5-27.]
- 한유진 (201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불령거의 교회론 비교. - ‘거룩한 보편

- 적 교회'를 중심으로 -. **기독교 철학**, 16(0), 59-84.
- [Han, Y. J. (2013). A Comparison of the Ecclesiology in Heidelberg Catechism and Bullinger - Focused on 'The Holy Catholic Church'. *Christian Philosophy*, 16(0), 59-84.
- 홍순원 (2013). 성령과 사회적 성화: 존 웨슬리의 성령론적 윤리. **신학과 실천**, 35(0), 567-589.
- [Hong, S. W. (2013). Holy Spirit and Social Sanctification: John Wesley's Pneumatological Ethics. *Theology and praxis*, 35(0), 567-589.]
- 황재범 편역 (2013). **개혁교회 3대 요리문답**. 서울: 한들출판사.
- [Hwang, J. B.(Translation) (2013). *The Three Major Catechism: Heidelberg Catechism (1563),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1647),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1541)*. Seoul: Handeul Publisher.]
- Heppe, H. *Reformierte Dogmatik*. 이정석 역 (2011). **개혁파정통교의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Ursinus, Z. *Commentary of Dr. Zacharias Ursinus on the Heidelberg catechism*. 원광연 역 (2006).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논문초록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 이해 -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

김성애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이 연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진 선행의 의미를 논의하고,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선행에 주는 과제를 시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과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의 의미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적 배경, 성격 및 구조가 다루어진다. 또한, 선행의 개념과 감사, 믿음, 성령에서의 선행 의미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선행을 논한다. 우르시누스는 선행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행은 중생한 인간이 사회적 약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선행이 한국 기독교에 시사해 주는 과제를 논한다. 초개인의 시대 속에 있는 지금의 사회는 점차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고 있고, 그 안에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적인 사명보다는 구성원 개개인의 이기심에 따른 계약 관계의 형성을 묵과하고 있다. 이렇게 점차 경제적 자본주의 논리 속에 매몰되어 공동체 의식과 이웃이 상실된 우리의 사회와 교회에서, 공동체와 이웃의 회복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윤리적 행위가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행동 강령으로 자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새 계명이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

주제어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선행, 사회적 약자

